

“행복한 광주 만들기 원없이 일해 수출도시 기틀 마련 가장 큰 보람”

강운태 광주시장

이달 말로 4년의 임기를 마치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23일 광주 시청 접견실에서 만났다. 강 시장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원 없이 일했다”면서 재임 기간 보람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담담히 인터뷰에 응했다. 특히 광주시가 모든 분야에서 활기찬 도시로 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4년의 임기를 마친 소감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시장의 모든 가치 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정진 없이 달렸다. 민감이 교차하지만 최선을 다한 4년이었다. 광주는 행복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만큼 이제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바로 민주주의다.
이 때문에 민주·인권·평화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 과학산업도시 건설을 시장의 3대 축으로 ‘지금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했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 많은 성취와 약진을 이루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시장 재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광주가 변하고 발전했다는 점이다. 지역적 한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

일에 파묻혀 현장속 소통 부족 아쉬워
압수수색·총인비리 등 시민에 죄송
문화전당·U대회 등 현안 잘 마무리하길

주·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약을 다졌다.

만년 소비도시, 못 사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었다. 광주는 고용 증가율, 취업자 수 증가율, 상용임금 근로자 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지키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부산, 대구를 앞지르는 159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광공업생산에서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5·18기록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새아구장 신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도심재개발 방식의 하계U대회선수촌 해결, 제2순환도로 승소 등도 커다란 성과였다.

-후회스럽거나 아쉬운 일이 있다면.
▲일에 파묻혀 지나다 보니 현장 속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등 충분한 소통을 했지만 실생활에서의 부대낌은 적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과도 인간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압수수색과 총인비리 등은 잘못된 사실임이 확실하지만 양면성이 있는 사안들이다. 먼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과정된 면이 크다. 시청을 마치 비리 집 단인양 표현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각종 감사와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는 항상 10위권내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퇴임 후 지역이나 중앙에서 활동 계획은 있는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계절의 변화 속에 곡식과 과일이 영글듯 겸허한 자세로 살겠다. 앞으로도 광주를 위한 일이라면 서슴지 않겠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지역 어르신들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날 계획이다. 광주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을 감수할 것이다. 광주를 가장 사랑한 시장, 광주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은 시장으로 기록되고 싶다.

-민선 6기 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윤장현 당선자의 인품 상 시민과 조화하며 민선 6기를 훌륭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에는 KTX 호남선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5광주세계U대회 등 중요 사업들이 실현되는 만큼 역량을 모아야 한다. 또 민선 5기 추진했던 사업들도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고 희망한다.

행정의 으뜸은 인사다. (내가)민선 5기를 시작할 당시에는 국장급(3급) 이상 승진 등 인사요인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6기는 다르다. 이번에는 3~5급 간부 공무원 승진 58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이상 10명 등 총 68명의 인사 요인이 있지만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국장급 승진은 지난 3월부터 발생했지만 추진하지 않았다.

민선 6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는 인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당선자가 이런 점을 감안해 배려를 바탕으로 한 탕평 인사를 하기 바란다.

-광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주는 이제 경제적 자립도시, 인권도시, 체육도시, 친환경 국제도시로 자리잡았다. 광주의 미래는 시민 손에 달려 있다. 주체적 의식과 자신감을 갖고 민선 6기 통합의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5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건설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사를 드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에서 유 만들어낸 도전의 10년 F1대회 경제파급 효과 따져보아야”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 지난 2004년 6.5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박 지사는 광주·전남지역 시·도지사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이란 기록을 남겼다.

그는 친환경농업과 축산을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 냈다는 성과와 함께 무리하게 유치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지속가능성 여부 결정이라는 과제도 남겼다.

-소감을 안 물을 수 없다.
▲그동안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후손들에게 잘사는 전남을 물려주기 위해 힘썼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 많은 것들도 이뤘다. 모두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로 퇴임 막바지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진도)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장소가 병풍도와 관매도 사이 뺨골수도로는 첫 보고를 받고 아찔했다. 취임후 여름휴가때 도내 섬을 찾아 다닌적이 있는데 그때 가보니 뺨골항에서 멀기



친환경 농업·축산 대표 브랜드로 키워
여수엑스포 유치 가장 기억에 남아
퇴임후에도 전남에 보탬될 일 찾을 것

도 하고 조류도 심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고 초기에는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았고 지금도 이틀에 한번 꼴은 진도에 가고 있다. 유가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으면 한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국민소득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운 일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여수엑스포를 유치한 것이다. 이렇다할 국제행사를 한번도 유치한 적이 없는 전남이 정부와 함께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남해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렸다는데 의미가 깊다. 엑스포유치 여수에 1년에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엑스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F1대회는 할말이 많다. 적자폭이 크다고 하는데 지난해 대회 때는 180억원대로 줄었다. 그리고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튜닝 등 자동차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된다.

-유일한 3선 광역 단체장을 지낸 임장에서 볼때 시·도지사 역할 중 행정가와 정치인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
▲행정이 80%, 정치가 20%라고 생각한다. 일본만 보면 시·도지사는 100% 행정가이지만 당에 소속돼 있어 정치를 무시할 수도 없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 재정 사정이 좋은 광역단체라면 몰라도 전남같은 경우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치행사는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

-요즘 호남정치의 실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호남정치를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호남정치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대권에 도전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원인은 큰 틀에서 봤을때 호남이

고립돼 있기 때문이다.
호남에 한정해서 보면 세가지 장애 때문이다. 나는 이를 것으로 ‘세가지 뒷’이라고 표현하는데 첫째, 인구동태적인 측면에서 충청권에 추월당한 인구문제다. 둘째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호남은 안된다는 사고가 주술처럼 퍼져있다. 당권 경쟁만 보더라도 호남은 안된다는 프레임이 굳어지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도 선거때 호남 출신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

이런 세가지 뒷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호남정치 복원의 키워드라 될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지만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민이나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남의 지난 10년은 도전의 역사였다.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전에 누가 섬, 햇빛, 태양열, 생물산업에 깊어지기를 부여하거나 했다. 새로운 것은 늘 두려운 것인데 공직자들이 연구하고 작업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새로운 정책을 믿고 함께 해준 도민들이 없었다면 지난 10년 전남도는 한발짝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거듭 감사말씀 올린다.

-남악에 아파트를 안았다는데, 퇴임후 계획은.
▲퇴임후에도 전남의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그것이 3선 단체장으로 뽑아준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도내 특정지역에 가기보다 우선 도정이 있는 남악에 조그만 처소를 마련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보겠다. 장기적으로는 한옥을 지어 전남에 정착하고 싶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그간, WON없이 쓰셨나요?

WON없이 써오신 뉴스, 언론사의 창작물입니다.

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

-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복제하여 내부 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는 경우
-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복제하여 e-mail 등을 통해 전송, 배포하는 경우
- 뉴스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무단 게재하는 경우
- 뉴스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관 홍보물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2014 뉴스저작권보호
광고·표어 공모전

*응모분야 : 동영상 스토리보드, 신문광고, 표어
*응모일정 : 2014.7.15(화)~8.29(금) 17:00
*시상내역 : 총상금 3,800만원(대상 500만원)
*홈페이지 : www.newskorea.or.kr/contest